

호스피스 의 결실

이경식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친애하는 가톨릭 호스피스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지면을 통하여 여러분 한분 한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면 제 가슴은 기쁨으로 용솨음치며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 호스피스 발전의 선구자들이며, 우리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숭고한 인간애와 사랑은 헛되지 않고 많은 결실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간 종교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노력으로 호스피스는 이미 우리 사회에 공용어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은 호스피스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에도 뿌리를 내려, 호스피스 학술발전의 산실이 되는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학회에 많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아세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회를 위하여 준비위원회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그때엔 한국 호스피스를 세계에 자랑하리라는 희망으로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밝은 미래는 모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얻지 못하고 제도권 밖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전국토의 도시와 지방을 연결하는 호스피스 조직망을 하루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때에야 우리나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참다운 복지국

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호스피스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새 문화와 새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호스피스의 결실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회원님들과 함께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내적인 결실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십여년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면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가톨릭 복음정신으로 호스피스에 참여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더 복음화가 되었는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인품이 변화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얼굴모습이 환하게 빛나며, 삶은 활력과 기쁨으로 넘치고,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성품이 온화하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더욱이 그들의 가정이 성가정으로 변화되고, 호스피스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 변화되고, 타 종교인도 똑같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 봉사자의 내적인 결실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나누면서 나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변화되었는가? 나의 가정이 점차적으로 성가정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호스피스 공동체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가? 종교를 초월하여 모

든 환자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하는가?

먼저 이 질문들을 저에게 물어볼 때, 저 스스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긍정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느낀다면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이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호스피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톨릭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더욱 변화되어 이웃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구한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힘이 많은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인품을 그와 같이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호스피스 사랑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당신 자녀로 부르시는 창조주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죽어 가는

환자와 함께 하시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환자와 가족과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찬 밝은 앞날이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면서 사랑의 생활을 시작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한분 한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새 사회, 새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호박꽃

아이를 많이 낳아 키워서
더욱 넉넉하고
따듯한 마음을 지닌
엄마 같은 꽃

까다롭지 않아 친구가 많은게야
웬만한 근심 걱정은
다 물어 버릴게야
호들갑을 떨지 않고서도
기쁨을 노래할 줄 아는 꽃

사랑의 꿀 가득 담고
어디든지 뻗어 가는
노오랗 평화여
순하디순한 용서의 눈빛이여

